OPEN ACCESS

공공도서관에서의 학술정보서비스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강 민 지 (Min-ji Kang)*
권 예 진 (Yejin Kwon)**

목 차

1. 서 론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국내 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현황
5. 시사점
6.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도서관통계, 광역대표도서관, 개별도서관 3개 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먼저 국가도서관통계를 통해 전체 공공도서관의 약 61%가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 중임을 파악했으며, 도서관의 예산, 회원 수의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도서관일수록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광역대표도서관과 개별 도서관 3개 관의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방식, 제공 DB 수, 접근점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는 자료 제공의 정량적 규모가 적고, 도서관별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크며, 서비스 예산, 담당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파악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함에 따라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해 추후 학술정보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To this end, it examines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ies, and three individual public libraries. The analysis of national statistics revealed that approximately 61% of public libraries provide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s, and that smaller libraries—based on budget and membership size—are less likely to operate such services. Furthermore, case studies on the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y and three individual libraries investigated their operation methods, number of databases offered, and access poin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Korean public libraries'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s are limited in quantitative scale, vary significantly in service quality among libraries, and suffer from insufficient budgets, staffing, and expertise. These limitations appear to stem from a lack of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scope of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s, as well as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ir necessity. This study contributes as foundational data for discussing future directions to enhance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n public libraries.

키워드: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학술 DB, 참고정보서비스.
Public Library,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 Academic Database, Reference Service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kang10-07@daum.net / ISNI 0000 0005 2901 4438) (제1저자,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yejin0412@skku.edu / ISNI 0000 0005 0563 187X)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25년 10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11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11월 2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4): 251-272,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4.251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2024년 5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계획의 12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국민 체감형 지식정보서비스 확대'가 포함되었다. 해당 과제는 '공공·교육·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국민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과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추진 과제로는 '공공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 '교육·학술정보서비스 확대'가 제시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통해 국가장서, 학술 및 연구정보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대표도서관과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소속 전문도서관 간의 연계된 정보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문화공간을 넘어, 학술정보의 대중적 접근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에서 학술정보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가 낮다고 인식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도 적고, 사서들의 관련 전문성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학술정보와 관련한 DB들은 구독료가 비싸기 때문에 개별 공공도서관에서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다(송재술, 신정아, 2013). 그럼에도 모든 도서관의 주요 목표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학술정보와 관련한 봉사는 고도의 참고봉사, 고차원의 정보봉사로 볼 수 있다(엄영애, 이두이, 2006).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의 학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학 등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이용자의 74.7%가 학술정보자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1차적으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학술정보를 찾지만, 정보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공공도서관을 방문한다. 이들은 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학술정보자원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적 정보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늘면서, 국가도서관과 연구지원기관은 DB 이용이나 원문복사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김초해, 박지홍, 2022).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과학 지식의 생산과 활용은 단순히 연구자들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학술연구는 공공재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장문석, 2023).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 서비스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학술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이용자가 계층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학술자원을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도서관에서의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Iwhiwhu & Okorodudu, 2012; Badruesham et al., 2025; Lachaiah & Hajdu Barat, 2025). 이용자들은 원문을 이용할 수 없거나 원문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정보서비스적 차원의 어려움이나, 검색 방법을 모르는 등의 정보 리터러시 차원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초해, 박지홍, 2022). 또한 공공도서관 간의 학술정보

서비스에 대한 공통적 정의와 범위가 부재하여,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와 광역대표도서관 및 개별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학술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구독 학술 DB 개수, 학술 DB 교육 및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만을 다루는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술정보자원에 대한 요구와 정보 행태를 파악한 연구(김초해, 박지홍, 2022) 외에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학술 자원(웹 DB 등)을 전자자료나 참고봉사서비스 범주에 넣어 공공도서관 자원 중 하나로써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의 필요성과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학술정보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술정보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공도서관은 참고봉사서비스로서 학술정보를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있었다(조명희, 박준식, 1995; 김석영, 2002; Iwhiwhu & Okorodudu, 2012; 송재술, 신정아, 2013; 곽철완, 2015; 채현수 외, 2022; Olatoye & Ohwofasa, 2025). 이들 연구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학술정보 이용 요구 증가를 학술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으로 분석하였다(조명희, 박준식, 1995; 김석영, 2002; 송재술, 신정아, 2013; 김초해, 박지홍, 2022). 먼저, 정보 제공 환경이 변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PC 사용의 보편화와 인터넷 웹 기술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도서관 업무도 맞추어 변화하게 되었다(김석영, 2002). 2000년대부터 전자책이 새로운 매체로 부상하고 보급되면서 전자정보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송재술, 신정아, 2013). 인터넷·웹의 보편화에 따른 전자자료의 출판은 학자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중의 정보 이용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엄영애, 이두이, 2006).

또한, 2000년대 이후 '오픈액세스(Open Access)' 확산으로 재정적·법적·기술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가 등장했다. 기존에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논문 등 학술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여 접근이 쉽지 않았다. 오픈액세스는 이러한 학술 환경 변화를 가져옴과 함께 지식의 공공성 강화와 과학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학술정보의 평등한 접근을 지향한다(장문석, 2023; 박서현, 2024).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식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공공도서관은 평등한 정보 접근을 강조하며 지식의 공공성, 대중화 등을 실천해 온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액세스의 확산은 도서관의 기존 역할을 더욱 강화하거나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Chowdhury et al., 2006;

Hernández-Pérez et al., 2020; Badruesham et al., 2025).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학술정보 이용과 관련한 연구에는 조명희와 박준식(1995), Iwhiwhu & Okorodudu(2012), 김초해와 박지홍(2022), 채현수 외(2022), Mushtaq & Arshad (2022), Lachaiah & Hajdu Barat(2025), Olatoye & Ohwofasa (2025)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실제로 학자와 연구자 외 사람들도 학술정보를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중 일부는 학술정보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초해, 박지홍, 2022; Mushtaq & Arshad, 2022; Olatoye & Ohwofasa, 2025).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자원에서 학술논문은 30.2%를 차지하기도 하였다(채현수 외, 2022). 그러나 이용자들의 방문이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원하는 자료의 부재 등 양적 부족, 자료 접근성이 낮고 서비스 지원 직원의 전문 역량 부족 등 질적 한계, 도서관의 재정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Iwhiwhu & Okorodudu, 2012; Badruesham et al., 2025; Lachaiah & Hajdu Barat, 2025).

기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학술정보 이용 실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학술정보를 전자책 등 전자자료 형태로 통계・서비스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웹 DB, 전자저널, 전자정보, 전자매체, 디지털 콘텐츠, 전자정보원, 전자자료, 학술정보자원 등 용어가 일관성 없이 혼용되어 사용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학술정보는 특정 학문의 영역에서 학자나 전문가가 최신의 연구와 발견에 대해 작성하고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유한 저작물로, 학술논문, 기술 동향, 특허, 학술 단행본, 강의자료(학술 동영상 등) 등 학술논문 정보, 학술지 정보, 연구자 정보, 연구분야/키워드별 연구동향 등도 포함된다(김초해, 박지홍, 2022; 배경재, 2010; 이지원 외, 2022). 일례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정보서비스'는 국가연구과제, 학술 단행본,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작성자 등을 위하여 연구 자료 및 데이터, 학술 DB, 희망자료 신청, 국외 전자책 구입 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연구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 자료 활용을 위한 참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술정보서비스의 정의를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참고봉사서비스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3단계의 자료 수집 및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헌 연구, 국내 사례 연구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는 1) 국가도서관통계를 통한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사례 조사, 2) 각 시・도별 광역대표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사례 조사, 3) 비교적 학술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된 도서관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단순 집계 수준에 머무는 국가도서관통계 분석을 제외하고, 학술 DB의 기준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술 DB로 안내하고 있는 DB 중 학술논문이나 연구보고서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거나, 원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구자가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학술 DB라고 판단했다. 특히 DB 내에서 학술연구자를 위한 이용 안내 및 자료 제공 등의 안내가 있다면 이 역시 학술 DB로 포함하였다. 단, 향토 문화나 지역자료 관련 DB, 행정 기록물, 언론 DB(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등), 단순 통계 DB(국가통계포털 등), 공개 강의 DB(대학공개강의 등) 등은 학술 DB의 성격보다는 참고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를 활용한 이유는 첫째, 현재 국내 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현황 관련 연구가 미비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역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도서관통계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학술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가도서관통계를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의 전자저널, 웹데이터베이스 제공 개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회원 수,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한 전자자료 서비스 현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음으로 광역대표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를 파악함으로써 각 시・도별 학술정보서비스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각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학술 DB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판단했다.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광역대표도서관 설립 단계에 있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은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술 DB 제공의 정량적 규모, 자료 이용의 편의성, 이용 교육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학술정보서비스가 비교적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이하 금호도서관), 부산도서관,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이하 반포도서관)[1] 3개 관을 비교 분석할 사례로 선정하였다. 금호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년 지역협력 정책간담회'에서 학술정보서비스 사례로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 자료를 통해 정보 제공의 규모와 방식 등을 살펴보고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의 선진적 사례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부산도서관은 광역대표도서관이나, 전국 공공도서관 중 최초로 학술정보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으로 확인되어(김지혜, 2020),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진적 운영 사례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금호도서관과 부산도서관이 각각 교육청, 광역시 직영 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군으로 자치구 위탁 형태로

1) 금호도서관, 반포도서관은 각각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초문화재단 소속 도서관으로, 학술 DB는 해당 기관 단위로 공동 구독하고 있어 소속 도서관들이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다만, 금호도서관과 반포도서관이 각각 소속 기관 내에서 학술정보서비스 실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대표 기관으로서 두 도서관의 명칭을 표기하였다.

운영되며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시행 현황을 보기 위하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2024년 통계결과표 중 전자자료 수를 조사하였다. 전자저널, 웹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에 입력된 정보가 있을 경우 학술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소장자료가 0종일 경우 학술정보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했다.

둘째, 각 시도별 학술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시·도의 광역대표도서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술정보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는 각 도서관의 학술 DB 목록 제공 여부, 제공 학술 DB 개수, 접근점, 통합검색 제공 여부, 학술 DB 이용 안내, 외국학술지 문헌복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학술 DB 이용 안내 여부는 학술 DB 목록,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면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학술자료 검색 방법, 논문 열람 방법 등 구체적인 DB 활용 방법 또는 교육자료가 있을 때는 매뉴얼을 제공 중이라고 판단했다. 외국학술지 문헌복사 서비스는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외국 문헌을 복사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있으면 서비스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조사는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에 나타난 데이터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였다.

셋째, 학술정보서비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3개의 도서관을 선정하여 국가도서관통계 및 각 개별도서관의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학술정보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광역대표도서관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학술정보서비스 예산과 이용통계, 도입 배경, 교육 프로그램 시행 여부, 담당자 업무 분장 등을 더 살펴보았다. 담당자 업무 분장은 업무분장표에 학술정보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 서비스 담당 직원이 업무 전문성을 갖출만한 환경이 마련되어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자료 조사는 2025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에 나타난 데이터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였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학술정보서비스 예산, DB 이용 통계, 도입 배경 등의 자료는 발표 자료를 참고하거나 실무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각 도서관의 연간 총 예산액은 국가도서관통계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예산, 이용 통계는 2024년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따라서 일부 서비스 현황은 현시점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를 활용한 분석에서 연구자가 '학술DB'로 분류한 DB 이외의 전자저널, 웹데이터베이스도 통계에 포함되어 있거나 중복 집계의 가능성이 있어 제공 여부 현황 이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광역대표도서관과 개별도서관의 사례로는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를 일반화하여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4. 국내 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현황

4.1 국가도서관통계로 살펴본 학술정보서비스

먼저 전체 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시행 현황을 보기 위하여 국가도서관통계 중 전자자료 통계를 활용하였다. 전자자료 통계의 소장형 전자저널, 구독형 전자저널, 소장형 웹데이터베이스, 구독형 웹데이터베이스의 네 항목에 입력한 정보가 있으면 학술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소장자료가 0종일 경우 학술정보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했다. 이를 전체 현황, 도서관 회원 수, 예산액 등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표 1〉 참조).

먼저, 국가도서관통계를 기준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전체 1,296개 관 중 약 61%(786개 관)는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저널 소장형, 저널 구독형, DB 소장형, DB 구독형 네 유형 중 두 개 이상을 서비스하는 기관은 있었으나 네 유형 모두를 운영하는 기관은 없었다. 공공도서관의 보편적인 서비스인 전자책 서비스는 국가도서관통계 기준 전체 도서관의 약 91%(1,182개 관)가 운영 중으로, 이와 비교해서 학술정보서비스의 운영 수치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회원 수를 1,000명 미만부터 100,000명 이상까지 네 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했을 때는 회원 수가 많을 도서관일수록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1,000명 미만의 도서관은 약 53%의 비율로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100,000명 이상 도서관은 약 80%의 비율로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표 3〉 참조).

예산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예산 규모가 클수록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

〈표 1〉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시행현황

구분	총관수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유형(관)				운영현황(관)		운영비율(%)
		저널 소장형	저널 구독형	DB 소장형	DB 구독형	운영	미운영	
전체	1,296	28	673	106	347	786	510	61%

〈표 2〉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시행현황(회원 수 기준)

회원 수(명)	총관수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유형(관)				운영현황(관)		운영비율(%)
		저널 소장형	저널 구독형	DB 소장형	DB 구독형	운영	미운영	
1,000 미만	95	1	36	1	28	50	45	53%
1,000 이상 10,000 미만	548	10	271	37	112	315	233	57%
10,000 이상 100,000 미만	609	16	333	54	177	386	223	63%
100,000 이상	44	1	33	14	30	35	9	80%
합계	1,296	28	673	106	347	786	510	61%

〈표 3〉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시행현황(예산액 기준)

예산액 (천원)	총관수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유형(관)				운영현황(관)		운영비율 (%)
		저널 소장형	저널 구독형	DB 소장형	DB 구독형	운영	미운영	
500,000 미만	424	11	150	10	71	193	231	46%
500,000 이상 1,000,000 미만	450	8	223	47	98	261	189	58%
1,000,000 이상 1,500,000 미만	163	4	108	11	56	119	44	73%
1,500,000 이상 2,000,000 미만	79	1	54	7	27	60	19	76%
2,000,000 이상	180	4	138	31	95	153	27	85%
합계	1,296	28	673	106	347	786	510	61%

이 높게 나타나고, 낮을수록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도 낮았다. 예산액을 500,000 천 원 미만부터 2,000,000 천 원 이상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2,000,000 천 원 이상의 예산액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전체 도서관 중 약 85%가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500,000 천 원 미만의 예산액의 도서관은 약 46%만이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해당 통계는 국가도서관통계 집계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각 지역의 대표도서관 등 상위기관에서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 중일 경우 산하도서관도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복 입력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 예산 및 인력을 편성해 학술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실 운영기관만 따진다면 현 운영 비율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학술정보서비스는 학술 DB 구독뿐 아니라 다양하고 충분한 정량적 자료 확보, 목록 제공이나 검색 등을 통한 자료 이용의 편의 제공, 자료 이용 교육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도서관 통계를 이용한 조사에서는 DB를 1종만 구독하더라도 학술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 자료 제공의 정량적 규모를 갖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는지, 양질의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4.2 광역대표도서관 홈페이지로 살펴본 학술정보서비스

다음으로 각 광역대표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술정보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4〉 참조).

홈페이지 조사 결과, 17개 광역대표도서관 중 전북도청도서관을 제외하고 16개 도서관이 학술 DB를 제공하고 있었다. 평균 약 14개의 DB를 안내하고, 그 중 약 9개의 학술 DB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도서관이 학술 DB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술 DB(35개)를 안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북도청도서관은 안내하는 DB가 없었다. 유료 DB를 기준으로는 평균 약 2개의 학술 DB를 구독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유료 학술 DB를 가장 많이 구독하는 도서관은 부산도서관(8개), 유료 학술 DB를 구독하지 않는

〈표 4〉 광역대표도서관 학술 DB 운영현황(학술 DB 개수 순)

지역	도서관명	안내DB(개)	학술 DB(개)	유료 학술 DB(개)
서울	서울도서관	73	35	5
대전	한밭도서관	28	25	3
부산	부산도서관	37	23	8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41	20	2
울산	울산도서관	34	17	0
충남	충남도서관	9	8	7
경북	경북도서관	9	8	5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4	4	2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3	3	1
경기	선경도서관	3	3	1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3	3	1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3	3	1
인천	미추홀도서관	2	2	1
광주	무등도서관	2	2	0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2	1	1
제주	한라도서관	1	1	1
전북	전북도청도서관	0	0	0

〈표 5〉 광역대표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세부내용(학술 DB 개수 순)

지역	도서관명	DB 소개	이용 매뉴얼	외국학술지 문헌복사 서비스
서울	서울도서관	O	X	O
대전	한밭도서관	O	X	X
부산	부산도서관	O	△	O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O	X	X
울산	울산도서관	O	X	X
충남	충남도서관	O	X	X
경북	경북도서관	O	X	X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X	X	X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O	X	X
경기	선경도서관	O	X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제공[2])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O	X	O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O	X	X
인천	미추홀도서관	O	X	O
광주	무등도서관	O	X	X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O	O	X
제주	한라도서관	X	X	X
전북	전북도청도서관	-	-	-

2) 경기도의 경우 2025년 8월 기준 대표도서관 건립 중으로 선경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1년부터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경기도 전역의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도 조사하였으나, 본문에서는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선경도서관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도서관은 울산도서관, 무등도서관, 전북도청도서관 총 3개 관이었다.

광역대표도서관 17개 관 중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전북도청도서관을 제외한 16개 도서관 중 청주시립도서관과 한라도서관 2개 관을 제외한 14개 관에서 학술 DB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 안내를 시행하고 있었다. 다만, 간단한 DB 소개와 열람 방식 안내였다. 청주시립도서관과 한라도서관은 DB 연결 링크만을 제공할 뿐 DB 소개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용 매뉴얼은 16개 도서관 중 부산도서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2개 관을 제외하고 모두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부산도서관은 일부 DB에 한해 이용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첨부해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는 구독 DB 안내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보다 상세한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접속 방법을 비롯해 통합검색, 결과 내 재검색, 결과 좁혀보기 등의 이용 매뉴얼을 광역대표도서관 중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안내하고 있었다. 외국학술지 문헌복사 서비스는 총 5개 관이 서비스 제공 중이었다. 서울도서관, 미추홀도서관, 세종시립도서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이화여자대학교와, 부산도서관은 부산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 다만, 선경도서관에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외국학술지 문헌복사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학술 DB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도서관 홈페이지 자료 이용 메뉴에 있거나,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전자자료의 일환으로써 제공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단, 최종 접근점인 메뉴명은 도서관마다 상이했다. 주로 '원문DB', '웹DB', '학술DB' 등 'DB', '원문', '학술', '웹' 등의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DBpia, KISS 등 특정 DB명을 메뉴명으로 하는 곳도 있었다. 또, 대부분 도서관이 1개의 메뉴에서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부산도서관, 서울도서관, 세종시립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은 학술 DB를 유료 DB와 무료 DB 등으로 여러 메뉴에 나누어 안내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선경도서관 외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학술정보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라남도립도서관은 '논문원문', '학술자료' 메뉴가 별도로 나뉘어 있었으나 두 메뉴 모두 DBpia로 연결되었다. 한라도서관의 경우 학술정보 이용 관련 메뉴가 없었으며 오직 메인페이지에 있는 '원문DB' 버튼에서만 DB 접근이 가능했다.

경북도서관과 충남도서관은 도서관 통합검색을 통해 학술정보도 함께 검색 가능했다. 경북도서관은 구글 스칼라, 네이버 학술정보와 함께 통합검색이 가능했다. 충남도서관은 '충남도서관의 소장자료와 국내외 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으며, 대상은 소장자료, 아카이브자료, 네이버북, 다음북, NDSL(과학기술정보서비스) 자료, RISS(학술정보연구서비스) 자료 등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었는데, NDSL은 2020년 10월에 ScienceON으로 서비스가 통합되었다. 따라서 자료 검색 시 NDSL 검색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ScienceON과 함께 통합검색이 가능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없었으며 선경도서관에서도 이를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17개 광역대표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운

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서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2020년 광역대표도서관 5곳(서울, 부산, 대전, 충남, 전남)만이 DB를 제공하는 것에서 현재 16곳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곽승진 외, 2020). 학술정보서비스의 접근점을 도서관별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활용에 대한 안내도 대부분 부족했다. 또한 일부 도서관에서는 링크가 연결되지 않거나, 종료된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DB 목록에 중복되어 표기된 DB가 있거나, 오탈자가 발견되는 등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거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4.3 개별도서관 사례로 살펴본 학술정보서비스

4.3.1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금호도서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2022년에 학술정보서비스를 도입했다(안현아, 2024). 서비스 도입 시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선진 사례 부족, 학술정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디지털 지식정보자료가 확대되고 있고,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나 국가도서관 등에 접근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과 비용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학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홈페이지 기준 금호도서관이 안내하는 DB 목록 112개 중 학술 DB의 개수는 90개였다. DB 구독 예산은 2024년 기준 276,237 천 원으로, 유료 DB 32개(국내 8개, 국외 24개)를 구독하고 있었다(안현아, 2024). 이 중 학술 DB는 18종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통합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도서관' 메뉴의 하위 메뉴 '학술DB'를 통해 유료 구독하는 DB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DB의 경우 '오픈액세스DB' 메뉴에서 DB를 안내하고 있다. '오픈액세스DB'의 경우 DB 초성별 검색이 가능하며 '오픈액세스DB 통합검색'을 통해 DB명, 논문 제목, 저자명 등을 검색해 원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나, 2025년 8월 기준 통합검색은 작동하지 않았다. '학술DB 안내 및 이용방법' 페이지를 별도로 두고 학술 DB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DB 접근 방법만을 안내하고 별도의 이용 매뉴얼은 제공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도서관 정회원 이용자면 관내 및 관외에서 구독 DB 이용이 가능하며, 관외 이용은 관내 도서관 PC에서 인증 후 일정 기간 이용이 가능하다. 무료 DB의 경우에 몇몇 DB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이트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대부분의 링크가 정회원 인증을 받은 이용자만이 DB에 접근이 가능하였다.

서비스 담당 직원의 업무는 '디지털자료실 및 전산실 관리, 학술DB・전자책・기타 전자자료 확충 및 홍보・운영, 안녕카미봇코딩교실 운영, 디지털자료실 자료 폐기 업무, 이달의 영화 운영, 좌석예약서비스 관리 및 운영, 자료 대출・반납 및 미반납자료 독촉・회수, 민원 업무 전반'으로, '학술DB・전자책・기타 전자자료 확충 및 홍보・운영'에서 학술 DB를 명시하고 있었다. 이용자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관련 이벤트를 연중행사로 진행하였다. 매월 출제한 퀴즈를 학술 DB를 이용해 답변하면 1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였다. 퀴즈는 도서관에서 선정한 논문 자료를 읽으면 풀 수 있는 문항으로 준비되었다.

다만, 조사 중 2025년 학술정보서비스 예산이 축소되어 유료 DB 구독 개수가 2024년 기준 32개에서 2025년 1개로 대폭 축소됨을 확인하였다.

4.3.2 부산도서관

부산도서관은 부산시민들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개관 당시인 2020년 전국 공공도서관 중 최초로 학술정보서비스를 도입했다(김지혜, 2020). 서비스 도입 시 공공도서관의 선진 사례 부족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도입할 DB를 물색하거나, DB마다 다른 계약 방식 등을 익히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부산도서관은 총 23개의 학술 DB를 안내하며, 예산은 2024년 기준 60,000 천 원으로 유료 DB 10개를 구독하고 있으며, 이 중 학술 DB는 8개이다. 교육청도서관 이용자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도서관 이용자라면 이용할 수 있으며, 관외 이용은 관내 로그인 이후 일정 기간 사용 가능하다. 유료 DB는 로그인해야만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무료 DB의 경우에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이트 접근이 가능하였다. 부산도서관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구독하는 DB 목록을 제공한다. 유료 구독 DB는 '학술DB', 무료DB는 '무료DB'를 메뉴명으로 하여 제공하고 있다. '원문검색' 페이지를 통하여 검색 시 통합검색 페이지로 연결되며 제목, 키워드, 초록, 저자, ISBN, ISSN, 저널, 발행처별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전자도서관 메인 페이지에서도 '학술원문' 탭을 통하여 학술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유료 구독 DB뿐 아니라 무료 DB도 통합검색이 가능하지만, 유료 구독 DB와 무료 DB 검색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어 유・무료 통합검색은 불가능하다. 부산도서관은 DB별 소개와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유료 DB인 Ebook Central Academic Complete, Proquest Central은 이용 매뉴얼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담당 직원의 업무는 '온라인 콘텐츠, 추천도서 알림 및 요약서비스 관련 사업, 비도서(전자도서 등) 구입・검수・서지DB 구축, 비도서 비치희망 구입・검수・서지DB 구축, 팀 예산・결산, BSC,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 이용통계 관리, 책나래・책바다 서비스 지원, 팀 서무에 관한 사항'으로, 학술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비도서(전자도서 등) 구입・검수・서지DB 구축'의 업무에 학술정보서비스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서관은 별도의 이용자 교육 및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4.3.3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반포도서관은 서초구 대표도서관으로,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서비스로 충족하지 못하는 이용자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학술정보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의 두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도입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술정보서비스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의 사례를 참고해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서초구는 3개의 위탁기관이 나누어 도서관을 운영 중이나, 위탁기관과 상관없이 서초구 도서관 이용자면 학술 DB를 이용할 수 있다. 총 23개의 안내 DB 중 학술 DB는 14개이다. 2024년 기준 학술정보서비스 예산은 7,219 천원으로, 유료 학술 DB 1개를 구독하고 있다. 유료 DB는

로그인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로그인 없이도 사이트 접근은 가능하였다. 무료 DB 경우에도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이트 접근이 가능하였다. DB별 소개와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별도의 이용 매뉴얼은 제공하지 않았다. 서초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콘텐츠' 메뉴의 하위 메뉴인 '학술DB'와 '무료DB' 메뉴에서 학술 DB를 안내하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면 '학술원문' 탭을 통해 학술자료까지 검색되었으나 학술자료 외에 온라인 잡지 기사 등도 같이 검색되었다.

서비스 담당 직원의 업무는 '홈페이지, 모바일앱 개발 및 관리, 디지털(전자) 도서관 관리, 보안 관리(개인 정보 관리), 도서관 통합 시스템 유지 관리'로, 학술정보서비스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디지털(전자)도서관 관리'에 학술정보서비스 업무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4.3.4 개별도서관 사례 3개 관 비교

3개 관을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은 학술 DB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금호도서관이며, 세 도서관은 평균 약 42개의 학술 DB를 제공 중으로 광역대표도서관에서 평균 약 9개의 학술 DB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안내하는 학술자료의 정량적 규모가 큰 편이다(<표 6> 참조).

<표 6> 개별도서관 3개 관 비교

구분			금호도서관	부산도서관	반포도서관
안내 DB (개)	총 DB		112	37	23
	학술 DB		90	23	14
	유료 DB (2024)[3]	총 DB	32	10	1
		학술 DB	18	8	1
		이용현황 (2024) (건)	93,104	77,421	2,915
		구독 예산 (천원)	276,237	60,000	7,219
접근점			광주광역시교육청통합도서관 〉 전자도서관 〉 학술DB	부산광역시전자도서관 〉 온라인콘텐츠 〉 학술DB	서초구전자도서관 〉 온라인콘텐츠 〉 학술DB
이용방식 (DBpia 기준)			관내 또는 인증 후 관외 180일 이용 가능	관내 또는 인증 후 관외 90일 이용 가능	관내 또는 인증 후 관외 90일 이용 가능
목록 제공			O	O	O
통합검색			O	O	O
매뉴얼 제공			X	△	X
연간교육실시			△	X	X
담당 업무 표기			O	X	X

3) 유료 DB(총 DB, 학술 DB, 이용현황, 구독 예산)는 발표 자료 및 각 도서관 담당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그 외는 모두 각 도서관 홈페이지 안내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세 도서관 모두 학술정보서비스 예산은 주로 학술 DB 구독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도서관은 금호도서관으로, 금호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예산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도서관 연간 예산 총액의 약 1.7%를 차지했다. 각 도서관의 연간 예산액은 국가도서관통계를 통하여 계산하였다.[4] 부산도서관은 부산 지자체 소속 도서관 연간 예산 총액의 약 0.12%, 반포도서관은 서초문화재단 소속 도서관의 약 0.1%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금호도서관은 2024년 기준 다른 공공도서관과 비교해 예산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투입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도서관 연간 예산의 총 자료구입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29.32%를 차지하였다.

이용 대상의 경우 금호도서관은 교육청 도서관 이용자로 서비스 대상을 한정하였지만, 부산도서관과 반포도서관은 각 지역의 도서관 이용자가 모두 사용 가능하였다. 이용 현황은 각 도서관의 자체 DB 이용 통계를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아 살펴보았다. 이용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금호도서관이지만, DB별로 이용 통계가 열람 건수, 접속 건수, 검색 건수 등 산출 방식 기준이 달라 해당 통계 수치만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 도서관은 모두 홈페이지의 '학술DB' 메뉴를 통해 학술 DB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메뉴명이 '학술DB'로 같았다. 무료 DB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픈액세스DB', 부산도서관과 반포도서관은 '무료DB'를 메뉴명으로 하여 안내하고 있었다. 또한 세 곳 모두 별도의 학술 DB 통합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었다. 단, 세 곳의 통합검색 범위는 상이하였다. 금호도서관은 오픈액세스 DB 통합검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접근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부산도서관은 학술 DB와 무료 DB를 나누어 각각 통합검색이 가능하였다. 반포도서관은 도서관 자료검색 시 학술정보도 함께 검색되었다.

이용 방식은 구독 DB에 따라 다르므로 세 곳 모두 구독 중인 학술 DB인 DBpia로 비교해 보았을 때, 모두 동일한 이용 방식을 보였다. 도서관 정회원 가입 후 관내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관내 와이파이를 통해 로그인했다면 관외에서 일정 기간 이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다만, 금호도서관이 180일로 다른 2개 관에 비하여 관외 이용 일수가 더 길었다. 관외에서의 무료 DB 접근의 경우 부산도서관과 반포도서관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금호도서관은 오픈액세스 DB도 대부분의 링크가 반드시 정회원 인증을 받은 이용자만이 로그인 후 접근할 수 있었다.

매뉴얼은 부산도서관만이 학술 DB 매뉴얼을 일부 제공하고 있었다. 교육은 세 도서관 모두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단, 금호도서관에서는 학술정보서비스를 활용해야 참여할 수 있는 퀴즈를 연중 이벤트로 진행한 바 있었다. 담당 직원 업무 분장에는 금호도서관에서만 '학술DB·

4) 금호도서관과 반포도서관은 각각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초문화재단 산하 도서관으로, 공동으로 학술 DB를 구독하는 형태기 때문에 소속 도서관 전체 예산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별도서관의 전체 예산이 아닌 소속 기관의 전체 예산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6개 관(16,255,134천원), 서초문화재단 소속 공공도서관 7개 관의 총예산(6,925,005천원)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부산도서관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산 지역 지자체 소속 도서관 39개 관의 예산(50,364,319천원)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전자책・기타 전자자료 확충 및 홍보・운영'으로 표기하였으며, 부산도서관과 반포도서관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다.

세 도서관 모두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서비스 운영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특히 금호도서관이 2025년 예산의 문제로 유료 DB가 1개로 대폭 축소되어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제공이 예산에 따라 불안정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5. 시사점

전국 공공도서관, 전국 17개 광역대표도서관, 비교적 학술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된 개별도서관 3개 관을 국가도서관통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운영 규모와 제공 방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현황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서비스 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국가도서관 통계 기준 공공도서관의 약 61%만이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안내하는 학술 DB는 평균 9개, 그 중 유료 학술 DB는 평균 약 2개에 그쳤다. 이는 예산과 크게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미약한 디지털정보서비스의 원인 중 하나로 공공도서관의 예산 부족을 언급된 바 있었다(송재술, 신정아, 2013; 곽철완, 2015; Lachaiah & Hajdu Barat, 2025; Olatoye & Ohwofasa, 2025). 실례로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유료 학술 DB를 제공 중이던 금호도서관은 2025년 예산이 삭감되어 2024년 유료 DB 18종에서 2025년 유료 DB 1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부산도서관도 학술정보서비스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0.12%에 그쳤다. 또한 개별도서관 사례에서 서비스 도입 시 겪은 어려움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 서비스 확장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도서관별 서비스 편차가 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서관별로 디지털 콘텐츠의 양과 질의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송재술, 신정아, 2013; 곽철완, 2015). 국가도서관 통계 기준 회원 수, 예산액 기준 각각 상위 비율 도서관의 80%, 85%, 하위 비율 도서관의 53%, 46%가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서울도서관이 35개, 금호도서관이 90개의 학술 DB를 안내하는 한편, 구독하거나 안내하는 학술 DB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도 있었다.

셋째, 서비스 담당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 학술정보서비스 담당 직원은 방대한 학술 DB의 종류를 파악하고 DB별 이용 방법을 파악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금호도서관, 부산도서관에서는 서비스 도입 시 공공도서관에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비율 자체가 낮은 상황이며, 일반 도서 정보서비스나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존 도서관 업무 비중이 이미 과중된 상황에서 학술정보서비스 담당 전문 인력 배치에는 현실적 무리가 따른다. 예산과 인력이 모두 부족한 환경에서 담당 직원이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충분한 인력 확보와 전문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곽철완, 2015; 채현수 외, 2022; Badruesham et al., 2025).

넷째,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 DB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용자 교육을 시행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의 도서관이 간단한 DB 소개 이외에는 이용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학술자료는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접근 및 활용하기에 낯선 자료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다양하고 질 좋은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술자료를 탐색,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이용자를 교육하는 전 과정을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담당 전문 인력 부족과도 결부된 문제로 보인다. 담당자의 업무 과중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담당하는 담당자 역시 참고할 만한 선례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 서비스 운영 어려움의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부재하다. 광역대표도서관 17개 관의 접근점을 비교하였을 때, '웹DB', '학술DB', '구독DB', '원문정보서비스' 등 서비스 명칭이 상이했다. 접근 경로 또한 도서관 자료검색을 통한 접근, 서비스 메뉴를 통한 접근,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 등 안내 방식이 각기 달랐다. 이는 공공도서관에서 학술정보서비스를 정의 및 분류하는 방식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역시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송재술, 신정아, 2013). 공공도서관의 자료 및 서비스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일관된 서비스 정의를 통해 시민이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안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도서관 간의 서비스에 대한 공통된 정의 및 범위가 부재한 것과 별개로, 학술정보서비스 안내 방식은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부산도서관의 학술DB의 경우 동일한 URL의 단일 페이지로 일원화되지 않고, DB별로 각각의 안내 페이지가 존재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 DB를 파악하는 데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추후 DB 구독 변경 사항 등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사서가 일관된 관리를 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특히 DB 중 'KRpia'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안내되지 않았으나 부산도서관 홈페이지로는 접근할 수 있었다.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는 학술 DB와 이용 방법 모두 대구전자도서관에서 안내하고 있었으나, '구독DB 안내' 페이지를 전자도서관 내 이용 방법 안내에서만 소개하고 있어 학술 DB와 이용 방법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한밭도서관의 경우 '대전공공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자료서비스' 메뉴와 '한밭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자료서비스' 메뉴가 각각 안내되고 있었지만, 동일한 URL로 연결되었다. 서비스의 통일성과 이용자 경험의 일관성을 위하여 접근점 통일이 필요하다.

일곱째,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도서관통계에서는 상위기관에서 구독

한 자료도 산하도서관의 통계에 포함되어 집계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도서관은 국가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사이트로 연결하는 단순 안내만으로도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료 제공 현황에 과대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통계 데이터에서 웹데이터베이스 구독 175,576,632종처럼 비현실적으로 큰 수치가 나타나는 등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은 문제도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범위 및 체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및 제언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는 12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국민 체감형 지식정보서비스 확대'가 포함되었으나, 추진과제 아래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정책·연구정보서비스 강화', '의회·법률정보서비스 고도화',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대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강화'로,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와 관련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 결과에서 '공공정책·연구정보서비스 강화'가 지자체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우수사례에서 중앙행정기관만이 확인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5).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국민 체감형 지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내 기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나 참고봉사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근거해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 광역대표도서관 및 개별도서관 사례를 통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논의의 선행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 광역대표도서관, 개별도서관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정보서비스를 운영 중인 도서관은 약 61% 정도로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둘째, 90개의 학술 DB를 안내하는 도서관이 있는 한편, 안내하거나 구독하는 학술 DB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이 있는 등 도서관별로 서비스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셋째, 서비스 예산과 담당 인력이 부족하며, 때문에 담당 사서의 전문성 확보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도서관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부재하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내에서도 서비스와 관련한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서비스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한 구조적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서비스는 양적으로 성장한 것이 확인되나, 도서관별 편차가 커서 공공도서관의 보편적인 서비스로 보기는 어렵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과 지자체, 교육청, 공공

기관 소속 전문도서관 간 연계 정보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제공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광역대표도서관 차원에서의 학술정보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내·외부적 인식 확립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학술정보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학술정보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정보를 선별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학술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유료 DB를 구독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오픈액세스 DB 안내 등으로도 이용자에게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정보서비스 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학술정보서비스의 필요성과 서비스 방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셋째, 접근점을 통일해야 한다. 현재 도서관별로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경로, 지칭하는 용어 등이 상이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용어로 통일해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공공도서관이 학술정보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술정보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인력 및 예산 확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지식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여 서비스의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 및 홈페이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을 비롯해 해외 선진도서관 사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사서들을 대상으로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서비스 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승진, 노영희, 오상희, 김정택, 노지윤 (2020). 세종시립도서관의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4), 27-60.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4.027

곽철완 (2015). 공공도서관 정보화 실태 연구: 2012년과 2014년 비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199-2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2.199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4-2028.

김석영 (2002). 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의 최근 개발동향. 정보관리학회지, 19(4), 214-231. http://dx.doi.org/10.3743/KOSIM.2002.19.4.214

김지혜 (2020.11.19.). 부산도서관, 국내외 학술 데이터 12종 서비스한다. NBN MEDIA. 출처: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23

김초해, 박지홍 (2022). 학술정보자원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연구: 일반인의 정보요구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57-8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2.057

문화체육관광부 (2025.04.1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첫해, 안정적 이행 성과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769

박서현 (2024). 국내 인문사회과학 분야 오픈액세스 실천의 특징과 함의: 지식공유연대와 한국심리학회의 실천들을 중심으로. 대학: 담론과쟁점, (2), 185-211.

배경재 (2010).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 서비스 대학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 차이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57-176.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2.157

송재술, 신정아 (2013).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형 전자정보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207-226. https://doi.org/10.4275/KSLIS.2013.47.3.207

안현아 (2024.11.29.). 공공도서관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학술정보 원문DB 콘텐츠 확충을 통한 통합전자도서관 활성화 모색.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년 지역협력 정책간담회국가도서관위원회, 서울.

엄영애, 이두이 (2006).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 봉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161-180.

이지원, 이재윤, 김수정 (2022). KCI와 RISS의 학술정보 항목 비교 분석.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5(2), 47-64. https://doi.org/10.23089/jdca.2022.5.2.003

장문석 (2023). 한국학 지식공유의 이념과 실천: 한국어문학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과 '열린 공공성'의 지향. 한국학, 46(4), 369-407. https://doi.org/10.25024/ksq.46.4.202312.369

조명희, 박준식 (1995). 공공도서관의 정보 및 안내봉사 도입을 위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3, 183-209.

채현수, 전정현, 이지연 (2022). 국가적 수준의 참고정보서비스 모형 및 가이드라인 요구분석 사례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221-252. https://doi.org/10.4275/KSLIS.2022.56.1.221

Badruesham, N., Kaur, K., Khalid, Y. I. A. M., & Hamzah, M. F. (2025). Perceived current and potential role of libraries in citizen science initiatives: Stakeholders' perceptions.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1-30. https://doi.org/10.22452/mjlis.vol30no1.1

Chowdhury, G., Poulter, A., & McMenemy, D. (2006). Public library 2.0: towards a new mission for public libraries as a "network of community knowledge". Online Information Review, 30(4), 454-460. https://doi.org/10.1108/14684520610686328

Hernández-Pérez, O., Vilariño, F., & Domènech, M. (2020). Public libraries engaging communities through technology and innovation: insights from the library living lab. Public Library

Quarterly, 41(1), 17-42. https://doi.org/10.1080/01616846.2020.1845047

Iwhiwhu, B. E. & Okorodudu, P. O. (2012). Public library information resources, facilities, and services: user satisfaction with the Edo State Central Library, Benin-City, Nigeria.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e-journal), paper 747. https://digitalcommons.unl.edu/libphilprac/747

Lachaiah, B. & Hajdu Barat, A. (2025). Library spaces vs. library resources: understanding user preferences and academic needs. Public Library Quarterly, 1-24. https://doi.org/10.1080/01616846.2025.2535937

Mushtaq, A. & Arshad, A. (2022). Public library use, demographic differences in library use and users' perceptions of library resources, services and place. Library Management, 43(8-9), 563-576. doi:https://doi.org/10.1108/LM-10-2021-0093

Olatoye, A. A. & Ohwofasa, F. (2025).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and resources utilisation in the digital age: implications for library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n oyo state. Communicate: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1), 130-13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 Hyun-A (2024.11.29.).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for Public Library Onlin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Promoting the Activation of an Integrated Digital Library through the Expansion of Full-text Scholarly Information Databases. 2024 National Library Committee, Seoul.

Bae, Kyung-Jae (2010).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information needs and usages among academic user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157-176. https://doi.org/10.4275/KSLIS.2010.44.2.157

Chae, Hyun Soo, Chun, Jung Hyun, & Lee, Jee Yeon (2022). A study on needs analysis for the reference service model and guidelinesat the national level: a focus 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a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221-252. https://doi.org/10.4275/KSLIS.2022.56.1.221

Cho, Myung-Hee & Park, Joon-Shik (1995).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 in public libraries. Annual Review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 183-209.

Jang, Moon-seok (2023). Ideology and practice of knowledge sharing of Korean studies: transition

to the open access publishing of the journal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he idea of "open publicness". Korean Studies Quarterly, 46(4), 369-407. https://doi.org/10.25024/ksq.46.4.202312.369

Kim, Chohae & Park, Ji-Hong (2022). A study on social sharing of scholarly information resources: focusing on laypeople's information needs and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2), 57-8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2.057

Kim, Jihye (2020.11.19.). Busan Library offers services for 12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databases. NBN MEDIA. Available: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23

Kim, Sukyoung (2002). Recent developments and trends of digital referenc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9(4), 214-231. http://dx.doi.org/10.3743/KOSIM.2002.19.4.214

Kwak, Chul Wan (2015). A study the informationization of public libraries: comparing 2012 with 2014.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199-2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2.199

Kwak, Seung-Jin, Noh, Younghee, Oh, Sanghee, Kim, Jeong-Taek, & Ro, Ji-Yoon (2020).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rvice and user activation plan of sejong c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4), 27-60.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4.027

Lee, Ji Won, Lee, Jae Yun, & Kim, Soojung (2022). A comparative analysis on research information elements in KCI and RISS.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5(2), 47-64. https://doi.org/10.23089/jdca.2022.5.2.00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5.04.14.). The first year of 'The 4th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shows stable implementation result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vailable: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769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The 4th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2024-2028.

Park, Suh-Hyun (2024). Aspects of open acces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South Korea: open-access practices of the knowledge commoning association and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University: Discoursesand Issues, (2), 185-211.

Song, Jae-Sul & Shin, Jeong-A (2013). A study on collaborative digital information service for

gyeonggi-do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207-226. https://doi.org/10.4275/KSLIS.2013.47.3.207

Um, Young-Ai & Lee, Du-Yi (2006). A study on the services for research of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4), 161-180.